

이중근 대한노인회장 “유엔데이’ 국가 공휴일 재지정을”

유엔 창설 80주년 기념식서 제안... 희생 기리며 헌화

한국전쟁에 참전한 유엔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해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을 제안해 온 대한노인회 이중근 회장(부영그룹 회장)이 유엔 창설 80주년을 맞아 열린 ‘유엔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해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부산시는 유엔 창설 80주년을 기념해 유엔 설립일이기도 한 10월 24일, 부산 UN기념공원에서 ‘제80주년 유엔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 무라타메르 재한유엔기념공원 국제관리위원회 의장 및 외교사절, 보존단체, 재부기 관장, 군장병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중근 회장은 낯선 땅 한국에서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목숨 걸고 싸운 유엔군을 기리며 UN기념공원 상징 묘역을 향해 직접 헌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회장은 헌화를 마치며 “6·25전쟁은 유엔군 60개국(전투 16개국, 의료 6개국, 물자 38개국)이 유엔 창설 이후 최초로 이 현재까지 유일하게 참전한 전쟁이다”라며 “유엔군의 희생 덕분에 오늘

날 세계 경제 10위권의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던 만큼 동방예지국의 면모를 갖춰 유엔군의 헌신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는 마음으로 유엔데이를 국가 공휴일로 재지정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고 말했다.

유엔데이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목표로 UN이 창설·발족된 1945년 10월 24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75년까지 법정공휴일이었으나, 북한이 1976년 유엔 산하 기구에 가입하자 이에 대한 항의 표시로 1976년 공휴일 지정을 폐지했다.

이중근 회장은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 제안에 앞서 유엔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2015년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 2.7m 높이에 국가별 상징작품과 승리의 상징 월계관 등이 새겨진 23개(한국 포함) 유엔참전국 참전비 건립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해당 기념물은 현재 부산 UN기념공원과 함께 전 세계 2개뿐인 유엔참전유산으로 각국의 참전용사를 추모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자리잡았다.

이 외에도 이 회장은 올바른 역사 인식



이중근 회장이 유엔의 날 기념식에서 헌화를 하고 있다.

을 전하기 위해 역사적 사실을 알지 형태로 기록하고 나열하는 ‘우정체(宇庭體)’ 기술 방식으로 저술한 역사서『6·25전쟁 1129일』을 국내외 기관과 해외 참전국에 1000만부 이상 무상으로 배포하기도 했다. 부영그룹 역시 2023년 공군 하늘사랑 장학재단에 100억 원을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국가보훈부 ‘재복의 영웅들’ 프로젝트 후원 ▲6·25재단 후원금 10만 달러 기탁 ▲격오지 부대 시설개선 지원 28억 원 기증 ▲군부대 위문품 전달 등 꾸준한 호국보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 회장의 이 같은 노력에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지난 8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양 의원 측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로부터 받은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추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유엔 설립일인 매년 10월 24일을 공휴일인 ‘유엔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려는 것’이라며 그 취지를 설명했다. 이밖에도 이 회장은 지난 9월 40만 명이 동참한 ‘유엔데이 공휴일 재지정 서명부’를 국회 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승원 기자



화순군 홍보대사 한한국 작가, ‘화순고인돌가을꽃축제장’ 찾아 감격 “우리 화순에 이런 곳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아”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23일 세계 평화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한한국 작가가 ‘2025 화순고인돌가을꽃축제장’ 방문해 축제를 관람하고, 세계 속의 화순을 위해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독특한 한글 서체와 세계평화지도를 선보이며, 세계 평화를 위한 작품활동에 바쁜 화순 청풍 출신 한한국 작가가 23일 화순군을 방문해 구복규 군수를 면담한 후, ‘2025 화순고인돌가을꽃축제’ 현장을 찾아 축제를 둘러보고 감탄을 자아냈다.

한한국 작가는 특히 춘양 방면 분재전 시장을 방문해 해설사들의 설명을 듣고, “고인돌과 분재의 매력적인 조화가 너무 인상적이었다”라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방명록에 직접 서명하는 등 깊은 관심을

보였다.

살아 움직이는 공룡과 핏배마위, 알과 카 먹이주기 체험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탄광 아이스크림까지 맛본 한 작가는 “우리 화순에 이런 곳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경기도 김포에 살면서 타지역 고인돌도 많이 봐왔는데 이렇게 집단적 군락지를 형성한 곳은 처음이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 작가는 또한 “선사시대 고인돌과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끝없이 펼쳐진 가을꽃밭을 세계적인 축제 명소로 잘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화순고인돌유적지의 국가정원 지정이 꼭 필요해 보인다. 나도 화순 출신으로서 힘을 보태겠다”라고 약속했다. /화순/김종환 기자

광양시는 다압면에서 40년간 유기농 밤을 재배해 온 방선호 마장지농원 대표가 2025년 10월 전라남도 ‘이달의 임업인’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방 대표의 1985년부터 40년간 유기농 밤을 재배하며 친환경 임업의 가치를 현장에서 실천해 온 선도적 임업인이다.

농약 없는 건강한 먹거리를 고민하던 그는 자연농업학교에서 유기농업을 접하고, 병해충을 자연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친환경 재배기술을 배우며 재배에 접목했다. 또 목초액을 활용한 친환경 방제제를 개발해 병해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면서도 화학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농법을 실현했다.

‘마장지농원’ 방선호 대표, 10월 전남도 ‘이달의 임업인’ 선정 40년 유기농 밤 재배로 임산물 브랜드 가치 높여

유기농법에 대한 그의 신념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왔다. 방 대표는 유기농 인증 유지관리 방법과 친환경 재배기술을 인근 농가에 전파하며 다압면 관동마을 전체를 유기농 마을로 전환시켰다. 그 결과, 관동마을은 2009년 전라남도 제1호 유기농 생태마을로 지정되며 친환경 임업의 본보기가 됐다.

유기농 밤과 고사리 등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고품질 임산물을 생산해 연간 1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성과를 거뒀지

만, 이에 머물지 않고 전남선도임업인협회 등 임업인 단체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후배 임업인의 성장과 지역 임업 발전에도 힘을 쏟았다.

방선호 대표는 “유기농을 실천하는 과정이 쉽지 않지만, 내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친환경 유기농 임산물 생산을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고품질 유기농 임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신선호 기자



나주시, 청년 농업인 역량 강화 교육 '1:1 현장 컨설팅' 성료

전라남도 나주시가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과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추진한 ‘2025년 청년 농업인 교육 및 1:1 현장 컨설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24일 나주시(시장 윤병태)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10월 15일부터 총 8회에 걸쳐 진행했으며 2023-2025년 선정된 청년 농업인 147명이 참여했다.

교육 과정은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의무 사항 이행 점검, 정책 개선 의견 수렴, 우수사례 발표 등으로 구성했으며 원예와 축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직접 농장을 방문해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했다.

현장 중심의 컨설팅은 청년 농업인 개인의 영농 여건을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초기 영농 과정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경영 능력과 소득 증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나주시는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총 271명의 청년 농업인을 선발해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정책자금 최대 5억 원(연 1.5%, 5년 거치 20년 상환) 융자 지원과 함께 교육과 컨설팅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나주/이명열 기자

보성군, ‘복지 위기가구 발굴 캠페인’ 전개

보성군은(군수 김철우) 오는 10월 22일과 24일 양일간 보성역과 별교역 광장에서 ‘고독사 및 은둔형 외톨이 예방을 위한 복지 위기가구 발굴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정신건강의 날(10월 10일)’을 기념해 사회적 고립과 은둔 문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는 보성군청 및 읍면 직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원봉사자 등 20여 명이 참여해 유동 인구가 많은 역사 주변을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참여 단체는 우리동네 복지공동체, 복지+안전협의체, 여성자원봉사회로 구성돼 ▲사회적 고립가구 및 은둔형 외톨이 조기 발굴 캠페인, ▲현장 상담 창구 운영,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사업 안내, ▲홍보



‘터치마인드 보드게임(주사위 퀴즈)’을 운영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보성/김은기 기자

2025 **장성** 방문의 해

Jangseong

국내 최대 규모 인공조림
축령산 편백숲

장성이 보내온 힐링 초대장